

마이포 벨리 페루아 총집약... '1865 프렐루전' 탄생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

골프 한 라운드인 18홀의 기준 타수는 72타다. 65타로 타수를 줄이기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주말 골퍼들에게는 골프를 사랑하는 열정과 노력, 여기에 행운까지 더해줘야 가능한 타수다.

칠레 와인 1865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행운의 골프와인 이미지였지만 기본기인 맛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반짝 인기엔 그쳤을터. 반대로 품질이 좋고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도 이만한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는 힘들다는 면에서 보면 1865는 그 어느 골퍼보다 스스로에게 행운을 안긴 셈이다. 1865는 사실 산 페드로 와이너리가 세워진 연도를 말한다.

그간 만나온 1865가 모두의 입맛을 맞춘 입문용이라면 '1865 프렐루전'은 산 페드로 와이너리가 새로 선보이는 1865의 최상위 프리미엄 와인이다.



1865의 수석 와인메이커 안드레아 카데론이 1865 프렐루전(원형사진) 출시를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널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기 위해 산 페드로는 1865가 시작된 마이포 벨리로 돌아갔다. 마이포 벨리는 칠레에서도 최고의 와인 산지로 꼽히는 곳이다.

1865의 수석 와인메이커 안드레아 카데론은 프렐루전 출시를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포 벨리는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커 포도가 숙성되는 속도를 늦추고 산도를 유지해 우아한 와인을 만들 수 있다"며 "프렐루전은 페루아를 최

한 표현한 와인"이라고 설명했다.

1865는 5개 대륙, 약 40개국에 수출되지만 산 페드로는 프렐루전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다. 그만큼 산 페드로에 한국 시장의 의미는 남다르다. 작년에만 한국에서 팔린 1865가 무려 102만병이다. 1865 전체 수출 물량의 60%에 달한다. 한국에 수입돼 팔리는 칠레와인 4병 중 하나가 1865라고 보면 된다.

프렐루전(PRELUSION)은 서사곡(Prelude)이란 의미다. 1865가 시작된 마이포벨

리의 페루아에 집중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처음과 중간, 끝이 명료하게 보여지는 걸작이 될 와인이라는 의미에서다.

프렐루전은 카베르네 소비뇽과 카베르네 프랑, 메를로 등을 섞어 보르도 스타일로 만들었다. 로사이로·알토 하우엘·피르케·엘 마리스칼 등 4개 포도밭에서 채배한 포도를 100% 손으로 수확해 만들었다.

프렐루전은 프리미엄 와인이라고 하지만 기존 1865와 변함없이 접근성이 좋다. 까다로운 보르도 와인고 달리 어렵지 않고, 바로 마셔도 맛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와인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균형미와 우아함, 숙성 잠재력을 갖췄다. 붉은 과실의 풍미에 오크 숙성에서 나오는 시가와 감초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부드러운 탄닌과 질감 좋은 산도를 느낄 수 있고, 끝맛이 길게 남는다.

1865 프렐루전은 출발이 좋다. 2019년 첫 빈티지부터 와인 전문지 디켄터로부터 97점을 받았다. 당시 포도 성숙과 수확 시기에 기후 조건이 잘 맞춰지면서 포도 자체가 균형과 집중력이 뛰어났다. 칠레 프리미엄 와인 가운데 첫 빈티지가 고득점을 받은 경우는 프렐루전이 처음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를 읽다가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 책을 내 인생에서 좀만 더 일찍 만났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책의 저자는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다 간 전 우익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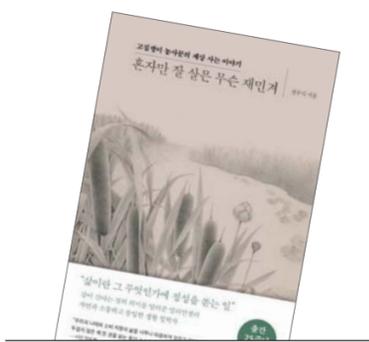
그는 해방 후 민청에서 청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6년 남짓 징역을 살고 나온 전 우익은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일을 하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는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책으로, 자연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겼다.

전우익옹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며 야귀다툼을 벌이는 인간들에게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한다.

"자리 매는 일보다 몇천만 배 더 큰 일 하자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울려야 할 텐데, 요즘은 일치보다는 차이를 너무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계절별 자연의 변화에서 구해낸 인간 사에 대한 통찰은 놀랍기만 하다. 이른 봄 언어 심은 수수 씨는 몇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수수는 늦여름에야 나기 시작했고, 그는 씨라는 것도 제각기 나름의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전부 다른 것처럼, 식물도 그와 같아 농사짓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가을엔 누렇게 빛이 바래 머지않아 떨어질 잎들을 잔뜩 달고 있는 상수리나무와 자작나무들을 보며 한탄한다. 춥고 먼 길을 가자니까 났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의 지음/현암사

수 있는 대로 간편한 몸가짐을 해야겠어서 잎을 다 떨궈버리는 지혜가 나무에겐 있는데, 왜 사람에게에는 없는지.

그는 울겨울도 추을 거라고 말한다. 그해 여름 그해 겨울을 살기에 언제나 지금이 가장 춥고 덥다는 것이다. 덥지 않은 여름이 없고, 춥지 않은 겨울이 없듯 역사도 수월할 때가 없었을 거라며. 그럼에도 온화한 가을을 몰아내고 찬바람을 몰고 온 겨울이 달갑지 않아 가지미 눈으로 흘겨보는 이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한응대지발춘화(寒凝大地發春華) '공공 열 어붙은 겨울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우리라는 노신의 시 구절입니다. 겨울과 봄이 남남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겨울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67쪽. 1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

팔레스타인 실험실

앤터니 로엔스틴 지음/유강은 옮김/소스의책

"우리가 판매하는 무기와 감시 기술은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시험한 것으로 비상시기에 이상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초도화하는 작전을 수행하며 신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는 것

에서 나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는데 사용된 자신들의 전쟁 무기를 버젓이 홍보한다.

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교한 감시·정보 장비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무기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됐는지 까발린다.

356쪽. 2만3000원.



근대의 초상

김인환 지음/산다

근대사회의 경제 체계는 쉬지 않고 확대된다. 그 바탕에 어긋남이 내재돼 있어 사람들은 일상에서 위기와 동요를 지속적으로 겪는다. 근대사회의 어긋난 사과는 우리가 노력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모든 사람이 부도와 실직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

가 바로 '근대'이기 때문이다.

책은 '어긋남의 체계', '일용할 기계', '가치론과 문화'라는 세 편의 글과 함께 자본론에 대한 절요를 통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만 사람답게 살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자유는 함께 자유로움이 라고 말한다. 124쪽. 1만3000원.



정상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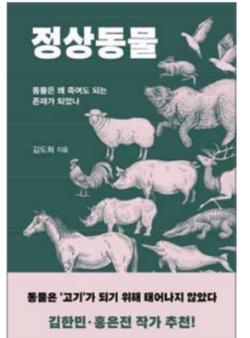
김도희 지음/은행나무

우리는 마트에서 무심하게 집어 든 '고기'가 '동물의 시체'라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한다.

돼지의 시체는 부위나 조리 방법에 따라 제육볶음, 족발, 보쌈 등으로 다르게 불리고 이런 어휘들은 고기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동물의 죽음을 의식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책은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생태·식량위기는 동물을 죽여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희생 시켜온 것에 대한 청구서"라며 "동물을 '고기', '실험체', '전시물'로 보지 말고 지구에 함께 사는 공생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12쪽. 1만80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하마스 "이스라엘이 인질 제안 거부" ...'전투 재개 준비' 지시
▲ 중국 11월 제조업 PMI 49.4·0.1P ↓ ..."2개월째 경기축소" /사진 뉴시스



▲ 박진 외교장관, 엑스포 유치 실패에 "애석...정부 최선 다해" /사진 뉴시스
▲ 베트남 올해 외국인 입국 11개월간 1120만명..지난해의 3.8배

▲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향년 100세로 별세...비공개 가족장
▲ 지구서 10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계 발견